

<참관기>

## 제2차 한국동남아학회-교토대동남아연구소 공동 국제학술회의

전 제 성\*

지난 10월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교토대학교 동남아연구소(CSEAS)의 새 건물 이나모리 빌딩에서 한국동남아학회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가 개최되었다. 교토대 동남아연구소와의 공동학술회의는 2009년에 당시 학회장이었던 서울대 인류학과 오명석 교수가 제안하고 진주 경상대학교에서 개최된 제1차 공동학술회의에 이은 두 번째 학술회의였다. 제1차 공동학술회의 당시 연구상임이사로서 기획과 실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서 2차 회의까지 무사히 성사되는데 특별한 기쁨과 보람을 느끼지 않을 수 없기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회원분들께 참관의 소회를 들려드리고자 한다.

우선 이 학술회의의 역사와 절차에 대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다. 교토대가 추진하는 중국, 대만, 동남아의 연구자간 협력이 교토대 측의 제안으로 시작된 반면에 한국과의 협력은 한국동남아학회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다. 우리가 제안하였기에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더 큰 학술회의라 할 수 있다. 공동학술회의가 해를 건너뛰며 격년으로 개최되는 것도 우리 측의 요구 때문인데, 한국동남아학회가 격년으로 아세안대학연합(AUN)과 공동주관하는 한-아세안국제학술회의와 겹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한국동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이메일: jjeseong@gmail.com).

남아학회는 한 해는 아세안대학연합과, 그 다음해는 교토대동남아 연구소와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함으로써, 매년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는 학회로 발전하게 되었다. 1차 대회는 우리가 8명의 교토 측 동남아연구자를 초대하여 성사되었고, 일본 측 참가자의 항공료와 식사를 제공하는 대신에 숙박비는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이번 대회는 교토 측이 우리 학회 측 10명의 연구자와 우리가 추천한 동남아 지역의 연구자 4명을 포함하여 총 14명을 초대해주어서 1차 대회보다 더 큰 규모로 개최되게 되었다. 한국, 일본, 동남아, 홍콩 등에서 총 35명이 참가하였고, 한국발 참가자는 항공료를 자비부담하고 교토 측에서 체류비를 부담해주었으며, 동남아 측 참가자는 전액 지원해 주었다.

학술회의의 대주제는 “Green and Life in ASEAN: Coexistence and Sustainability in East Asian Connections”로 잡혔다. 대주제는 교토 측이 제안한 것으로 그들이 수년간 진행하는 거대한 연구의 핵심어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였다. 수자원과 식량생산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에 관한 패널이나, 주로 노령화에 대비하는 사회보장과 지역 돌봄체계에 관한 패널이 ‘녹색’과 ‘삶’이 상징하는 대주제를 뚜렷하게 반영한 것이었다. 아울러 동남아 이주노동자 문제, 한국 측에서 조직한 아세안의 동아시아 정책 및 동남아와 우리의 상호작용에 대한 패널은 ‘동아시아 코넥션’에 해당되는 기획이었다.

야수유키 코노(Yasuyuki Kono) 교토동남아연구소 부소장은 환영사를 통하여 그 동안 “동남아란 무엇인가”를 연구해왔으나 이제는 “동남아연구가 어떻게 실제 삶에 기여할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하였다면서 이번 학술회의의 지향점을 일갈하였다. “다원적 공존”(plural coexistence)의 “삶”(life)과 “지속가능”(sustainability)의 “녹색”(green)을 추구함으로써 더 “튼튼하고 안전하고 평화로운”(secure, safe and peaceful) 세계를 만들어가자는 것이었다. 그 연

구방법으로서,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연구를 ‘미국식’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뛰어넘어, 자연과학, 공학, 의학을 포괄하는 더 넓은 학제적 연구를 제안하였다. 기조연설에 나선 저명한 역사학자 다카시 시라이시(Takashi Shiraishi) 교수도 자연과학과의 협력연구를 추진한 한 개 팀의 수주연구비가 인문사회과학연구 전체 연구비의 4분의 1에 달한다면서 폭 넓은 학제적 연구의 위력과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동아시아지역협력에 있어서도 과학기술분야의 연구협력이 중시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실로 이번 학술대회에서 가장 인상적이면서도 난해했던 패널이 바로 기후변화에 관한 것이었다. 교토측이 야심차게 선보인 이 패널은 일본과 태국의 자연과학자들이 협력 연구한 결실이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패널보다는 덜 충격적이었지만 노인보건 문제에 관한 패널은 의학도들과의 협력연구 결과를 보여주었다. 의료보험과 지역 돌봄체계의 효과에 관한 연구 수행에 있어서 의사들과의 협력은 필수적일 것이다. 지구와 자연에 대한 관심이 대지진 이후 일본 동남아연구자들의 재난에 대한 민감한 관심을 보여준다면, 노인보건에 대한 관심은 노령화 사회로 일찍이 진입한 일본의 고민이 투영된 것이었다. 그렇지만 재난과 노령화 문제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우리도 관심을 갖고 연구에 착수해야 할 사안들이다.

그 밖의 패널에서도 흥미로운 발표들이 이어졌다. 본업에 따라 인도네시아 관련 발표자들이 필자의 흥미를 끌었다. 인도네시아 노인 건강에 존경이 변수가 된다는 코스케 미주노(Kosuke Mizuno) 교수의 연구나, 홍콩의 인도네시아 가정부가 쓴 소설을 분석한 자파르(Jafar Suryomenggolo) 박사의 연구도 흥미로웠지만, 그 가정부들의 레즈비언 활동에 관한 에이미 심(Amy Sim) 홍콩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의 연구가 압권이었다. 이주노동자운동단체에서 일했고 스스로 동성애자이기도 한 그녀는 미국 레즈비언 세계를 다룬 드라마 *The*

*L Word*에 버금갈 정도의 상세한 성행위, 성역할 및 그 사회관계적 의미에 관하여 발표함으로써 나른한 가을오후의 세미나장을 뒤흔들더니, 식사자리에서도 성에 관한 이야기를 거침없이 쏟아놓곤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에게 저항했던 조선인 병사들에 관하여,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 동원되었던 조선인 전범들의 불운한 처지에 관하여 책을 썼던 아이코 우즈미(Aiko Utsumi) 교수의 발표를 직접 듣게 된 것도 행운이었다. 뒤풀이 자리에서 ‘목포의 눈물’을 기억하는 그녀에게 홍석준 교수가 직접 노래를 불러주기도 하였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치에 관한 이야기가 한국과 동남아 측 참가자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아세안 지역주의와 동아시아공동체의 국제정치, 이주의 정치적 효과, 그리고 시민사회운동에 관하여 한국 측 참가자들이 발표하였고, 북지의 정치와 인권문제에 관하여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참가자의 발표가 있었지만, 일본 측 참여자들의 정치 이야기는 없었다. 인도네시아 정치연구자 오카모토 마사아키(Okamoto Masaaki) 교수가 하버드대학교로 안식년을 떠났고, 필리핀 정치연구자 패트리시오 아비날레스(Patricio Abinales) 교수가 하와이대학교로 이적하면서 정치학 연구의 일시적 공동화가 발생한 탓도 있겠으나, 교토 동남아연구소 연구자들에게 정치적 주제가 도외시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학술대회 준비의 총책임을 부여받은 코수케 미주노 전소장은 2년 전에 자신들이 한국동남아학회로부터 받았던 환대를 이번에 갚아야 한다는 의지를 불태웠다. 교토의 일반적 관행에서 벗어나 매끼 식사를 제공하고 저녁마다 ‘파티’를 열면서 그런 예외적 환대를 “한국식”이라고 불렀다. 마지막 날에는 근교의 우토로(Utoro) 마을로 안내하여 거주지문제로 오랜 싸움을 전개해온 ‘재일코리안’ 주민들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장시간 공짜통역의 노고를 자임하였다. 교토 측의 인도네시아 사학자 자파르는 이번 학술대회가 2년 만의 재회에 기뻐하는 “그리

움의 세미나”인 것 같다는 인상을 피력하였다. 지켜진 약속과 각별한 환대에 감사하는 뜻으로 박승우 학회장께서는 마지막 날에 교토동남아연구소장단을 시내의 한국식당으로 초대하여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2년 뒤에 제3차 회의를 목포대학교에서 개최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이제 다음 학술대회 준비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 때는 어떤 주제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The 2<sup>nd</sup> Joint International Symposium**  
organized by **Kor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tudies (KASEAS)**  
and **Center for Southeast Asian Studies (CSEAS), Kyoto University**

**VENUE** Inamori Memorial Hall,  
CSEAS, Kyoto University, Japan

**DATE** October 28-29, 2011

## Green and Life in ASEAN: Co-existence and Sustainability in East Asian Connections

### PROGRAM

#### OCTOBER 28:

Keynote Speeches by:

**Prof. Yoon Hwan Shin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Sogang University)**

**Prof. Shiraiishi Takashi (National Graduat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Japan)**

Panel 1. ASEAN: Perspective from Northeast Asia

Panel 2. Social Security and Local Care System in Southeast Asia

#### OCTOBER 29:

Panel 3. Impact, Adaptation and Vulnerability of Climate Change on Water Resources and Food Production

Panel 4. Interaction of Migrant Workers in East Asia

Panel 5. Flows and interactions with Southeast Asia

#### OCTOBER 30: Excursion in Kyoto



The Symposium is sponsored by CSEAS-Kyoto University  
"Towards Sustainable Humankind in Southeast Asia"  
and by JSPS Asian Core Program

